

배움을 읽는 눈

표준보육과정의 핵심인 '배움읽기'와 연계한 '놀이중심 보육일지 쓰기' 역량강화

팀명 : 새 보 꿈



목 차



1

소 개

- 학습 공동체 개요
- 현장에서 느낀 문제의식
- 주제선정 이유
- 활동을 시작하며 하는 배움

3



배움과 변화 및 핵심 성과

- 배움읽기 후 일지적용 사례
- 활동을 통해 나타난 관점·실천상의 배움과 변화
: 배움읽기를 통해
- 활동을 통해 나타난 관점·실천상의 배움과 변화
: 학습공동체를 통해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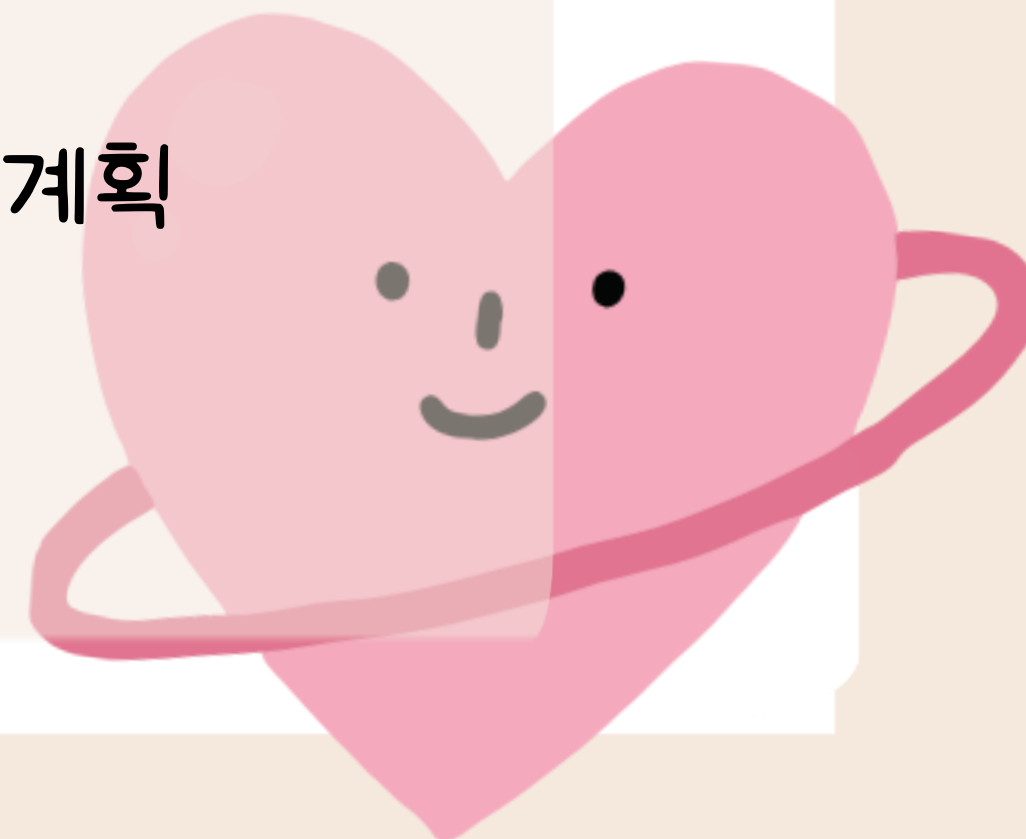
운영방식 및 과정

- 학습공동체 운영 방식
- 학습공동체 전개과정
- 운영과정에서의 주요 조정·협의 경험

4



향후 적용 및 확산 계획



1

소 개

학습공동체 개요

- 구성원 : 어린이집 보육교사 5인
- 운영기간 : 2025년 10월 ~ 2026년 2월
- 운영방식 : 표준보육과정 영역별 이론학습, 이론학습 후 현장사례 공유, 회차별 주제 중심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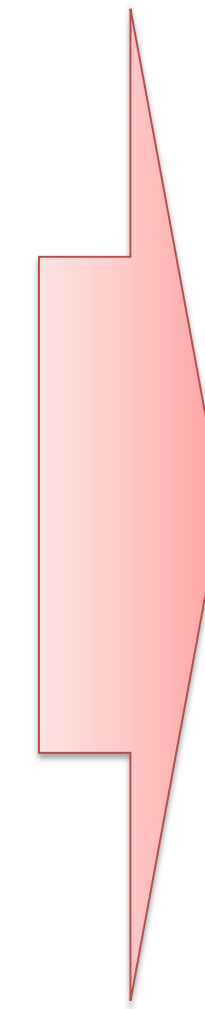




현장에서 느낀 문제의식

배움읽기는 영유아의 행동을 관찰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놀이의 의미를 해석하고 교사의 지원으로 연결해야 하기에 교사의 전문적 판단과 성찰을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반면, 충분한 관찰시간과 협의 시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움읽기를 일지에 반영해야 하는 상황이 많은 것이 현실임

특히, 배움읽기 기록과정에서 교사들은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이 해석이 적절한지'에 대한 부담을 느끼며, 관찰-배움읽기-교사 지원이 분절된 채 작성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로인해 놀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보다는, 기록에 적합한 장면을 선별하거나 발달 영역에 맞추어 해석하려는 경향이 나타남



주제선정 이유

영아들의 놀이 장면을 교사의 시선으로 함께 읽고 해석하며, 형식적 기록이 아닌 실제 놀이흐름과 교사의 지원이 잘 드러나는 일지적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또한, 교사 간 사례 공유와 협의를 통해 배움읽기에 대한 해석의 부담을 완화하고, 일지를 '완성해야 하는 문서'가 아니라 '배움을 이어보는 기록'으로 재구성함으로써, 표준보육과정의 방향이 현장에 현실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함.



1

소 개



학습공동체를

시작하며

기대하는 배움

영아의 놀이장면을 함께 살펴보고, 동일한 관찰 장면이라도 교사마다 다르게 읽히는 배움의 관점을 공유하여 배움읽기에 '정답'이 있기보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형성하고자 함.

교사지원이 계획 중심으로 형식화되는 것이 아니라, 놀이순간 교사의 언어와 태도, 기다림과 반응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일지로 변화하기를 기대



학습공동체를 통해 교사들이 일지작성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영아들의 놀이와 배움을 보다 깊이 바라보는 시선을 갖게 되며, 표준보육과정의 방향이 일상적인 보육실천과 기록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기를 기대함

학습공동체 운영방식

모든 차시 대면모임을 기본으로 sns나 메일로 상시 소통하며 진행

- 1회차 사전모임 : 전문가와 함께 시작
 - 6차시 : 전문가 피드백 요청
 - 7차시 사후모임 : 전문가와 함께 마무리
- 



학습공동체 전개과정

1회 차

사전모임

- 주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 운영계획 및 운영방법 논의

2회 차

‘의미있는 놀이 (귀 기울이기)’

- 아이의 놀이에 귀 기울이는 방법 나누기
- 의미있는 놀이의 사례 공유
- 놀이를 기록하고 배움으로 읽기

3회 차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 3가지 영역 배움읽기에 대한 팀원별 자료 공유 및 논의

4회 차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예술경험’

➡ ‘자연탐구, 예술경험’로 변경

- 2가지 영역 배움읽기에 대한 팀원별 자료 공유 및 논의



학습공동체 전개과정

5회 차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자연탐구’

➡ 비구조적인 놀잇감(수수깡)
을 통한 배움읽기와 일지적용

- 수수깡 놀이 관찰을 통한 의미있는 놀이 관찰하기
- 수수깡 놀이 사례 속 배움읽기와 일지적용
- 두번째 비구조적 놀잇감 정하기

6회 차

‘풍부한 배움읽기’

➡ 비구조적인 놀잇감(눈뿔뿔이)
을 통한 배움읽기와 일지적용

- 눈뿔뿔이 놀이 관찰을 통한 의미있는 놀이 관찰하기
- 눈뿔뿔이 놀이 사례 속 배움읽기와 일지적용

7회 차

사후모임

- 운영 전반 및 학습 성과 정리
- 전문가와 결과보고서 확인 및 피드백
- 최종 보고서 작성 및 수정

운영과정에서의 주요 조정·협의

- 전문가의 피드백
 - 회차별 학습내용 수정
 - 놀이기록 후 영역별 배움읽기 내용 추가, 배움지원을 위한 교사의 적극적인 지원계획 필요성
 - 각자의 고민과 경험 공유 시 배움지원의 다양한 사례 나누기
 - 회차별 모임후기에
 - 구성원 간 조정·협의
 - 영역별 배움읽기 학습 후 동일 놀잇감 활용한 놀이 관찰기록 후 배움읽기 공유
 - 배움읽기 내용을 보육일지에 반영
- 



배움읽기 후 일지 적용 사례 - 만1세

관찰일:2025.12.16.(화) 관찰자 : 만1세 김교사

영아는 다양한 색의 수수깥에 관심을 보이며 바닥에 놓인 수수깥을 집어 **같은 색 깔끼리 모아보았다**. 수수깥을 길게 나열한 후 자동차를 올려 굴리며 길을 따라 움직이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관찰하였다. 놀이 중 친구가 수수깥을 두드리자 가까이 다가가 함께 두드리며 소리에 반응하고, 노래를 흥내 내듯 소리를 내며 놀이를 이어갔다. **영아는 친구의 행동을 바라보며 따라 하거나 함께 반응하며 같은 공간에서 놀이를 지속하였다.**

보육일지 적용

영아는 다양한 색의 수수깥에 관심을 보이며 같은 색깔끼리 모아보았고, 수수깥을 길게 나열해 자동차 길을 만든 후 자동차를 굴리며 놀이를 이어갔다. 놀이 중 친구가 수수깥을 두드리며 소리를 내자 가까이 다가가 함께 두드리고 노래를 흥내 내는 모습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영아는 색의 공통점을 인식하고 사물의 관계를 탐색하였으며, 친구의 행동에 반응하고 모방하며 또래와의 정서적 교류를 경험하였다. 이에 교사는 영아의 놀이를 존중하며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고, 영아의 행동을 언어로 반영하여 탐색과 표현, 사회적 상호작용이 자연스럽게 확장될 수 있도록 관찰 중심으로 지원하였다.

관찰일:25. 12. 12.(금) 관찰자 : 만1세 이교사

수수깥을 보자 영아들이 모여들어 수수깥을 탐색하다 부러트린다. 친구가 부러뜨리는 모습을 보더니 영아들이 양손에 힘을 주며 수수깥을 부러뜨린다. 윤이는 수수깥 3개를 집어들더니 **"이건 길고 이건 짧아. 다 달라."** 하면서 크기를 표현한다. 그러다 길이가 다른 수수깥을 연결하여 기찻길을 만들어 '이건 기찻길이야'한다. 민현이는 수수깥 2개를 겹치더니 '선생님 이건 병원 표시예요'라고 말한 후 긴 수수깥 두 개를 젓가락처럼 잡고 바닥에 있는 수수깥을 집으려 한다. 도하는 긴 수수깥으로 바닥에 떨어진 작은 수수깥을 툭툭치며 이리 저리 움직인다. 수수깥을 가득 모으고 싶어 하는 **영아에게 베닐팩을 제공해 주었더니 수수깥 공을 만들거라고 표현하며 베닐에 수수깥을 담는다.**

보육일지 적용

수수깥에 관심을 보인 영아들이 모여들어 탐색을 시작했다. 한 영아가 수수깥을 부러뜨리자 옆에 있던 영아들도 양손에 힘을 주며 수수깥을 부러뜨리며 촉감과 소리에 관심을 보였다. **윤이가 수수깥 세 개를 집어 들고 길이가 다 다르다고 말소리로 의사표현을 하더니 수수깥으로 기찻길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민현이는 수수깥 두 개를 겹쳐 놓고 '선생님 이건 병원 표시예요'라고 말하며 주변의 상장에 관심을 가지고 표현해 주었다. 또 긴 수수깥 두 개를 젓가락처럼 잡아 바닥에 있는 수수깥을 집으려고 시도하며 대소근육을 조절하며 놀이하는 모습을 보였다. 수수깥을 양 손 가득 모으다 떨어뜨리는 **영아에게 베닐팩을 지원해주자 베닐팩에 수수깥을 담으며 "수수깥 공 만들거야"라고 의사표현을 하고 수수깥을 담은 뒤 공놀이하며 놀이하였다.** 영아들이 눈사람 그림 위에 수수깥을 대며 눈사람 옷주미기에 관심을 보여 **부러뜨린 수수깥으로 커다란 눈사람 모자이크 놀이를 지원해주도록 해야겠다.**



배움읽기 후 일지 적용 사례 - 만2세

관찰일: 2025.12.29.(월) 관찰자 : 만2세 황교사

아이들이 눈폼폼이에 관심을 보이며 지성이는 막대기를 이용해 폼폼이를 하나씩 끼우며 "꼬치"라고 이야기 하기도 하였다. 리하와 린이는 손가락에 모두 끼웠다 빼며 손의 힘을 조절하며 놀이를 지속하는 모습을 보였다.

은우가 '눈은 차가워요' 하며 장갑을 가져와 손이 끼며 "아 차거워"라고 말하며 차가운 눈을 표현하는 놀이를 즐겼다. 폼폼이를 여러 개 모아 위로 올려 쌓으려 하며 높이에 관심을 보였고 넘어지자 다시 쌓는것을 반복하며 주변친구들의 놀이를 바라보며 같은 방법으로 놀이하려는 모습도 나타났다.

보육일지 적용

폼폼이 고구에 관심을 보이며 손으로 집어 막대에 끼우며 꼬치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눈으로 상상하며 상상놀이를 즐기며 놀이를 이어가며 장갑을 가져와 손에 끼고 "아 차거"라고 말하며 겨울과 눈을 표현하는 놀이로 확장되었다.

폼폼이를 높게 쌓으려 시도하며 반복적으로 쌓고 무너뜨리는 놀이를 즐기며 균형을 잡으며 높이 쌓으려는 시도를 하였다. 작은고구를 다르며 손의 힘을 조절하고 소근육을 사용하며 놀이 중 느낀 감각을 말로 표현하며 의사표현을 시도하였고 친구들의 놀이를 관찰하고 모방하며 또래와 함께 놀이를 즐기는 모습이었다. 아이들의 놀이를 지켜보며 언어 표현을 확장 해 주기도 하고 끼우기 놀이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종이빨대를 제공하여 놀이를 지속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충분한 교구와 공간을 제공 하였다.

관찰일: 2025.12.22.(월) 관찰자 : 만2세 유교사

하온 이는 눈 폼포미를 눈뿌리듯 날리거나 눈앞으로 가져와 눈 폼포미로 눈을 가리며 탐색을 이어간다. 빨대블록을 가져와 폼포미를 하나씩 꽂는다. 빨대에 꽂힌 모양을 유심히 바라보며 "마쉬멜로 같아요."라고 말한 뒤 먹는 시늉을 한다. 은색 봉투에 담으며 곁에 있는 친구에게 "같이 담자 라고 말한다." 옆에 있던 주하는 고개를 끄덕이며 "꼬치 같기도 하다. 우리 마쉬멜로 먹어 봤지."라고 말하고 서로 바라보며 미소를 보인다.

보육일지 적용

영아는 눈 폼포미를 탐색하던 중 빨대블록을 가져와 눈 폼포미를 하나씩 꽂았다. 영아의 자발적인 탐색놀이가 지속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색의 빨대블록과 눈 폼포미를 지원해 주었다. 빨대에 꽂힌 모양을 관찰하며 "마쉬멜로 같아요."라고 말하고 먹는 시늉을 하며 상상놀이를 확장했다. 은색 봉투에 담고 쏟는 놀이에서 미소를 보이며 대소근육을 조절 하였다. 주하는 하온 이의 놀이를 바라보며 "꼬치 같아."라고 말하며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였고 하온 이는 또래 놀이에 언어로 반응하며 이야기를 들었다. 영아들이 표현하는 언어를 반복 확장해 말해주며 놀이 속 의사소통이 풍부해 지도록 지원하였다. 또래와 놀이 속에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경험 하였다. 하온이는 폼포미의 질감과 빨대블록의 구조를 탐색하였고 끼우는 과정에서 규칙성을 경험 하였다. 또 눈 폼포미를 음식에 빗대어 표현하며 상상 놀이를 확장하였다. 폼포미를 음식이나 사물에 빗대어 표현하는 조작놀이와 상상놀이가 이어질수 있도록 그릇,접시,집게, 봉투등 소꿉놀잇감을 풍부하게 지원해 주어야 겠다.



배움읽기 후 일지 적용 사례 - 만2세

관찰일: 2025.12.29.(월) 관찰자 : 만2세 황교사

시호가 눈 폼퐁이를 트럭에 차곡 차곡 쌓고는 "북극곰한테 가져다 줄 거예요 얼음이 녹아서 북극곰이 힘들어하거든요."라고 말한다. 트럭에 실은 폼퐁이를 교실 한쪽에 다시 차곡차곡 내려놓으면서 "북극곰한테 얼음 집 만들어 주는 거예요."라고 한다. 시호의 모습을 본 서아가 "얼음집 같이 만들자."라고 하면서 눈폼퐁이를 더 가지고 와 쌓기 시작하니 채아와 수현이도 함께 폼퐁이를 쌓기 시작한다. 네 명의 영아가 모두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둘레를 쌓고는 채아가 "선생님 엘사 집이에요."라고 말하면서 안으로 들어가는데 발에 닿아 폼퐁이가 무너지자 라원이 "얼음 왕국이 무너졌어. 해가 짹짹 비춰서 무너졌어"라면서 다시 폼퐁이를 쌓으며 놀이하였다.

보육일지 적용

시호는 눈 폼퐁이를 보고 북극곰 이야기를 생각해내고 환경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였다. 북극곰과 얼음 집 이야기를 들은 서아가 관심을 가지고 얼음집을 함께 만들자고 말하였고 시호의 놀이를 탐색하고 폼퐁이를 쌓는 모습을 모방해 함께 폼퐁이를 쌓기 시작하였다. 눈 폼퐁이를 쌓기 시작하는 영아들을 본 교사가 충분한 양의 폼퐁이와 공간을 지원해주니 시호는 눈폼퐁이를 가져다 날라주고, 채아와 서아는 폼퐁이를 길게 나열하면서 크게 둘레를 만들고 수현이는 채아와 서아가 나열한 폼퐁이 위에 한 층을 더 쌓으면서 함께 얼음 집을 만들며 대소근육을 조절하였다. 채아가 얼음집을 엘사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겨울왕국" 상상을 하면서 놀이하다가 얼음 집 한쪽이 무너졌다. 얼음집이 무너지는 모습을 본 라원은 얼음집을 얼음왕국이라고 표현하고 "해가 비춰서 얼음이 녹는다."라고 얼음이 녹는 현상을 이야기하며 자연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며 놀이하였다. 시호의 북극곰 이야기를 통해 영아들이 협동해 얼음왕국을 만들어 놀이하는 모습을 보고 영아들이 놀이 중 하는 이야기에 주의를 기울여 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북극곰과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계획 해보려 한다.



활동을 통해 나타난 관점 · 실천상의 배움과 변화(주요성과)

배움읽기를 통해

- 기록이 체계적으로 바뀌었음
- 영아에 대한 상호작용의 방법과 관찰에 집중하게 됨
- 계획안대로 놀이가 흘러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에 대한 여유가 생김
- 교사 계획 중심에서 영아 놀이 중심으로 바뀜



활동을 통해 나타난 관점 · 실천상의 배움과 변화(주요성과)

학습공동체를 통해

- 다른 어린이집 교사들과의 의견나눔 속에서 우리 반 아이들의 특성과 놀이 반응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음
- 같은 놀이장면에 대해서 서로 다른 해석을 나누며 관찰이 평가가 아닌 이해의 과정임을 인식
- 기록을 위한 관찰에서 벗어나 영아의 배움에 근거한 의도적인 교사지원이 이루어짐을 연습함



- 학습공동체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관찰을 기록중심에서 배움중심의 배움읽기 관점으로 적용확대
- 학습공동체 결과를 보육일지, 반 운영, 환경구성, 부모소통 자료에 연계하여 현장 적용 강화
- 타 교사와 학습공동체 내용공유를 통해, 교사 간 협력적·성찰적 보육문화 정착





감사합니다

